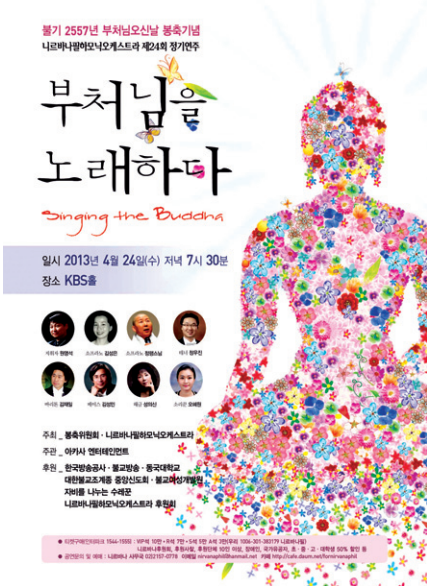


봉축 알리는 동서양 음악의 향연

니르바나 필하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니르바나 필하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공연은 불교와 현대음악의 접목을 시도해온 불교계 대표 음악회 중 하나다. 니르바나의 24회 정기 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가 4월 24일 저녁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린다.

강형진 단장은 "연등축제를 널리 알리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음악회이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정신을 전달하는 공연이다. 상생과 화합이라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동서양 음악의 융합, 솔리스트와 합창의 하모니 등



니르바나오케스트라 24회 연주회 포스터

4월 24일 7시 30분 KBS홀서
수익금 일부 국제구호단체 전달

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음악감독 김의명, 지휘 원영석)에서는 200여명이 넘는 합창단이 자연을 묘사한 대중적인 가곡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가사의 찬불가 향연을 펼친다. 지휘에 원영석, 소프라노 정영선, 김성민, 해금 성의신, 국악인 오혜원 등이 출연 축제를 위한 서곡, 배 띄워라, 마음꽃, 석굴암, 향심, 행복, 춘향가 중 사랑가, 열 등을 공연한다.

강 단장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성악솔리스트, 판소리, 해금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뛰어나는

맑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부처님의 사상을 표현하게 된다. 올해는 음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해 자연을 묘사한 가곡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가사의 찬불가의 향연을 펼치고자 한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탄신을 함께 즐기고 경축하는 뜻을 공연으로 펼쳐 풍성한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KBS-1TV 'KBS중계식' 프로그램으로 전파를 타며 공연 수익금 10%는 국내외 구호단체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에 전달된다. 티켓은 VIP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이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학대사의 일대기 오케스트라로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

무학대사의 일대기를 주제로하는 '제9회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가 5월 3일 오후 6시20분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가 5월 3일 열린다.

이번 예술제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3개군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축제의 장을 펼친다.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는 "무학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우리 민족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인물들의 일대기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는 봉축법요식에 이어 '무학대사 일대기'를 오케스트라로 펼친다. 특히 '무학대사 일대기'는 탄생-출가 그리고 수행-태조 이성계와의 만남-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순으로 진행되며 연주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무학대사(1327~1405)는 고려말과 조선초 불교계를 개혁한 인물로 선사상을 수용하고, 불교와 사회의 개혁을 시도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031)527-1956

정혜숙 기자

한암·탄허 스님 선필 한자리에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전 국립중앙박물관서



한암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선종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한 근대 한국 불교를 중흥한 대표적 인물이다. 또한 그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근현대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儒佛道)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암·탄허 스님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월 16일~6월 16일까지 테마전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를 개최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석가탄신일과 연계해 기획된 전시에는 안양 한마음선원, 평창 월정사, 대전 자광사, 양산 통도사,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불교문화재단에서 대어한 서예작품, 탁본, 현판 등 80여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오대산 월정사의 한암(1876~1951)·탄허(1913~1983) 스님의 글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스님들의 글씨는 한국 서예 전통에서 선필(禪筆)의 범주에 속한다. 선필은 품격과 개성의 표현 방식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박성원 학예연구사는 "근현대 변혁의 시대를 살다간 두 스님은 전통적인 유학과 고전을 수학하며 성장했다. 그래서 두분의 글씨는 넓은 의미에서의 선필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글씨는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 고전의 경구, 삶의 자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뿐만 아니라 잔잔한 한글 글씨가 갖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며, 특히 편지 글에서는 글씨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한암 스님의 작품은 스님의 학식과 인품의 면모를 보여주듯 글씨풍은 단정하고 정적인 필치로 격조 높은 선비의 글씨를 보는 듯하다. 스님이 남긴 편지 글은 근대 국한문, 한글 글씨의 중요한 자료다.

한암 스님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을 닦던 중 불교에 귀의했다. 당대의 유학과 불교학의 권위자였던 한암 스님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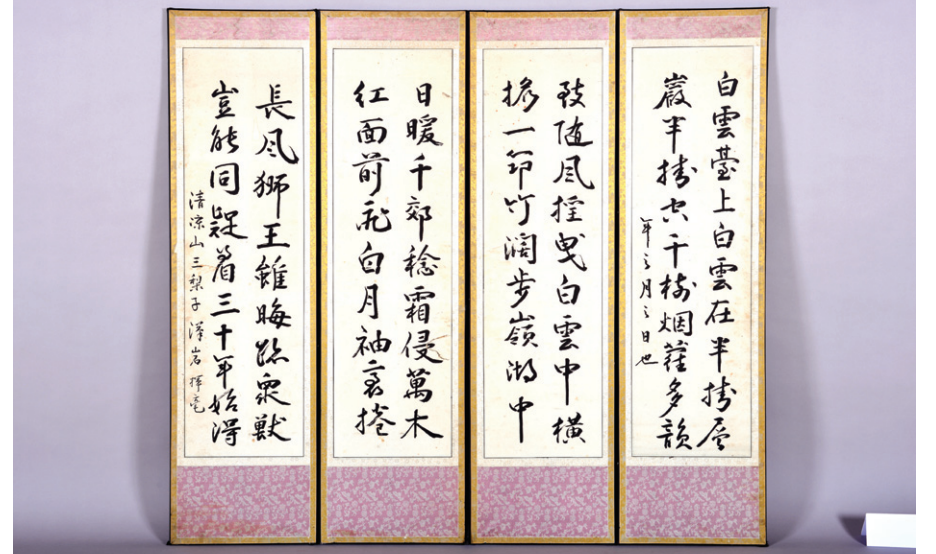
4월 16일~6월 16일 테마전

병풍 액자 부채 등에 담긴 글씨
스님들의 자취와 사상 보여줘

7월부터 전국 순회 전시도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승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이 찾고 따랐으며, 그의 수제자 중 한 명이 탄허 스님이다. 특히, 스님은 1951년 14 후퇴 때 오대산 상원사의 소각 위기를 운몽으로 지켜낸 분으로도 유명하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상원사의 대화재로 소실된 한암 스님의 연구와 관련 자료를 복원했다. 또한 스승의 뜻을 이어 전소된 월정사를 중건했으며, 평생에 걸쳐 추진한 화엄경 및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뜻을 펼쳤다. 늘 대중과 가까이 했던 탄허 스님은 필묵을 즐겨 생전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암·탄허 스님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월 16일~6월 16일까지 테마전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를 개최한다. 작품 위가 탄허 스님의 '심심심', 아래가 한암 스님의 '백운대'

이들은 대부분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들에게 남겼던 것으로,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스님의 글씨는 한암 스님의 글씨와는 달리 활달하고 기세가 빠른 필치가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채 병풍 액자 편지 등에 새겨진 스님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암 스님의 백운대, 진묵대사 답장, 한서운 답장 그리고 탄허 스님의 지풍, 진묵

대사 모친 추모문, 심심심, 향상리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일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심층적 해설을 접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7월 국립공주박물관, 9월 국립전주박물관, 10월 월정사성보박물관, 12월 국립춘천박물관 등 전국에 걸쳐 순회한다. (02)2077-9558

정혜숙 기자

禪불교문화의 보고 '선림원'을 엿보다

국립춘천박물관 제 2전시실서

통일신라의 선(禪) 본산 선림원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역사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테마전 '선림원'을 상설 2전시실에서 개막했다.

강원지역은 신라 후기 선종의 본산이었으며 선종 9산 가운데, 도윤(道允)의 사자산문(獅子山門, 강원 영월 흥녕사, 지금은 범흥사)과 범일(梵日)의 사골산문(강원 강

릉 굴산사)이 강원지역에 자리 잡았다.

춘천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는 "강원도 양양에 자리잡은 선림원(禪林院)은 804년경에 창건, 흥각선사가 변창시킨 사찰로 당대 최고 수준의 선수련원이었다. 10세기 전후에 대흥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었다고 전하는 선림원은 산골짜기 계곡을 앞에 두고 터를 잡고, 가로로 길게 금당 조사당 등 건물을 세웠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선림원터에는 삼층석탑(보물 제 444호),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흥각선사비 구부 및 이수(보물 제446

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명문이 있는 중, 수막새와 암막새 등 기와, 토제 소탑 등 발굴 유물 등을 통해 통일신라 선종 사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흥각선사비편, 소탑, 기와, 풍탁 등이 전시된다. 소탑은 공덕을 쌓기 위해 사리, 불경과 함께 탑 안에 봉안되는데, 선림원 소탑은 실제 탑과 같은 양식을 보여준다. 또 연꽃무늬 수막새, 당초무늬 암막새, 연꽃무늬 마루수막새와 도깨비무늬기와 등 다양한 기와도 선보인다. 흥각선사비는 9세기 후반 신라의 명승인 흥각선



춘천박물관 선림원터 기와 전시품

사 생애와 활동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당시 유행하였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 이 전시에서는 전시품을 통해 당시 양양 선림원의 웅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033)260-1537 정혜숙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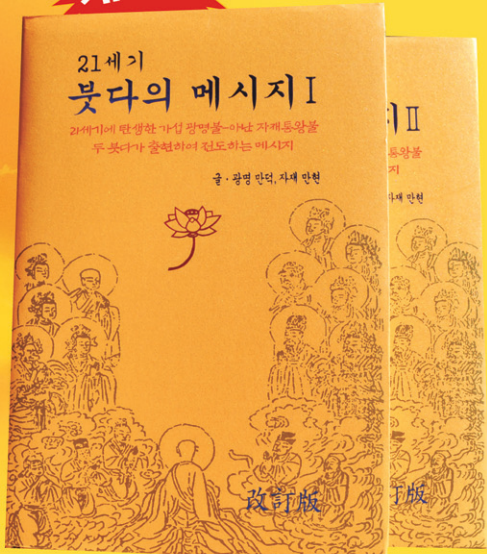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 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